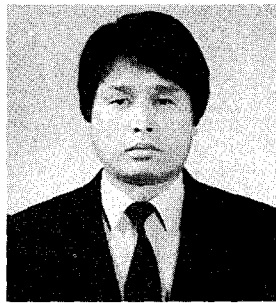


축산물 생산비



김정주
건대 농경과 교수

오늘 날 한국의 축산업은 축산물 상품화율의 증가와 함께 축산경영형태는 영세, 부업적 형태에서 기업적 전문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으므로 종래의 주먹구구식 경영분석에서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생산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생산비라함은 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쉽게 말하고 있으나 그 산출방법을 두고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왜냐하면 생산비를 보는 시각이나 산출기준에 따라 그 구성이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축산물 생산비에 관한 이론과 산출방법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생산비에 관련된 몇가지 이론

생산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토지의 사용대가인 지대(地代)를 생산비에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주장도 있다.

전자가 가격론적 입장의 생산비이고 후자가 지대론적 입장의 생산비이다. 가격론적 입장의 생산비 설을 보면 농축산물 시장가격은 지대를 포함한 생산비를 중심으로 변동된다고 믿고 있다.

즉, 시장가격이 지대가 포함된 생산비를 보상해 줄 만큼 충분하지 못하면 생산이 중단되고, 그렇게 되면 공급이 줄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시장가격이 지대를 포함한 생산비를 보상해 줄 만큼 충분히 높게 형성되면 생산량이 늘어나 공급이 증대되고 그렇게되면 가격은 다시 떨어진다고 믿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의 견해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리카도」라는 학자는 다소 다른 견해를 가졌다.

「리카도」에 의하면 농산물의 가격은 비옥도등 조건이 가장 나쁜 토지에서 경작한 농가의 생산비를 기준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비옥도등 조건이 좋은 토지에서 경작한 농가는 그만큼 이득을 보는 셈이 된다. 다시말해서 나쁜 토지를 경작하는 농가보다 좋은 토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농산물생산비는 적게 먹힌다는 것이다. 「리카도」는 이것을 차액지대라고 말하면서 지대는 농산물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아니고 가격이 결정되고나면 그 결과로 나타날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조건이 가장 나쁜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비는 차액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국 생산비에 지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토지의 사유화가 일반화된 경우에는 토지를 하나의 자본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토지자본에 대한 임차료의 성격인 지대가 당연히 생산비의 구성항목이 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생산비를 놓고 일어나는 또 하나의 다툼은 생산비의 계산 방법상 회계학적 입장과 경제학적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회계학적 입장에서 말하는 생산비의 구성을 보면 원료 구입에 따른 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 고용노임에 대한 비용등 실제로 지불한 화폐액에다가 화폐로 직접 지불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생산과정에서 자본재가 달아 없어진 부분 즉 감가 상각비를 합친 것만을 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업회계에서는 총원가(總原價)라고 부르며 농업부문에서는 이를 경영비라는 개념으로 규정짓고 있다. 따라서 농가를 포함한

하나의 경영체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하려면 적절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농축산물의 판매가격은 총원가의 성격인 경영비에다가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와 경영자 보수에 해당하는 이윤, 조세공과금등을 포함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생산비의 구성은 경제적 비용 또는 풀 코스트(Full Cost)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에는 앞서 말한 회계학적 비용에다가 농가의 기회비용과 정상이윤 및 조세공과금을 포함한 총비용의 개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에는 토지를 포함한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와 축산경영자의 자기노동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윤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총수입에서 요소에 대한 총지출을 차감한것 이외에도 다른곳에서 벌어들일수 있는 경영자 자신에 대한 보수와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까지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학적 의미의 생산비는 자연가격에 해당하는 생산비로서 일반적으로 생산비라 함은 경제학적 의미의 생산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생산비를 놓고 견해를 달리한 다툼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같은 내용을 놓고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생산비라 함은 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총망라한 비용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축산물 생산비 산출방법

축산경영에 있어서 생산비 산출방법은 경종농업의 경우와 비교해서 근본적으로는 다를바 없으나 절차나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가축이라할지라도 축종에 따라 항상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설령 같은 축종이라하더라도 경영목적에 따라 산출방법이 다른 수밖에 없는데 예를들면 번식

우의 경우와 비육우의 경우 생산비산출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비육우를 예들들어 생산비를 산출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비육우 생산비는 일정한 기간동안 투입된 비용과 생산물인 소를 판매할때까지 늘어나는 체중의 증가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한마리의 비육우만을 사육하는 경우는 별문제가 없으나 구입시기가 서로다른 2마리이상을 동시에 사육할 경우는 문제가 다소 복잡해진다. 비육우 생산비 계산기간을 규정함에 있어 한마리의 소가 태어나서 비육되어 판매될때까지의 생리적 주기를 기준한 '분리 계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를 관계하지 않고 1년간을 계산기간으로 하는 '통합 계산 방법'이 있다.

2마리 이상을 동시에 사육하는 경우는 '분리 계산 방법'이 적용되기에는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축의 생리적 주기에 불구하고 보통 1년을 기준으로한 '통합 계산 방법'을 쓰고 있다. 또한 계산단위도 마리당으로 하는 것보다는 kg당 생산비를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kg당 생산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에 증가하는 총 증체량과 총 투입비용을 알아야하는데 총 증체량계산은 다음 식에 의한다.

즉 총 증체량 = (판매된 소의 총 체중 + 기말까지 보유된 소의 총체중) - (구입된 소의 총체중 + 기초에 보유된 소의 총 체중)

여기서 계산된 총 증체량으로 총 생산비를 나누면 kg당 생산비가 된다.

만일 비육우 두당 생산비를 알고자 한다면 계산

기간동안 평균사육두수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총 증체량을 비육우 한마리당 평균 증체량으로 나누어 계산 할수도 있지만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 즉

$$\text{평균 사육 두수} = (1\text{월초 사육두수} + 2\text{월초 사육두수} + \dots + 12\text{월초 사육두수} + 12\text{월말 사육두수}) / 13$$

여기서 분모가 13이 되는것은 12월에는 월초와 월말의 사육두수가 이중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농가가 1월 1일 현재 250kg짜리 중소 한마리 보유하고 있다가 3월초에는 300kg짜리, 5월초에는 200kg짜리, 7월초에는 250kg짜리, 11월초에는 250kg짜리 소를 각각 한마리씩 년간 모두 4마리 구입하여 사육하였다고 하자. 이제 다시 4월에 400kg짜리, 6월에 500kg짜리, 8월에 400kg짜리, 10월에 400kg짜리를 각각 한마리씩 도합 4마리를 판매하고 나니, 12월 31일에는 300kg짜리 중소 한마리만 남았다고 한다면 구입 총체중은 300 + 250 + 250 + 250 = 1050kg이 되고, 판매총체중은 400 + 500 + 400 + 400 = 1700kg이 되며, 기말보유 총체중은 300kg이고, 기초보유 총체중은 250kg이므로 기간 총 증체량은 (1700 + 300) - (1050 + 250) = 700kg이 된다. 따라서 만일 투입총비용이 277,000원이라면 비육우 생체kg당 생산비는 390원이 된다.

이때 평균 사육두수는 다음 표에서와 같이 15/13 = 1.15두수가 된다.

(표-1) 사육두수의 변동(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말	계
구입 두수	**1		1		1		1				1			*4
판매 두수				1		1		1		1				4
보유 두수	1	1	2	1	2	1	2	1	1	0	1	1	1	15

* : 구입된 두수의 합계임 ** : 최초 보유 두수임

비육우 kg당 생산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축비는 연간 비육할 중소 구입 가격과 구입에 따른 부대비용을 합한것으로 하며,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료비인데 사료비는 다시 농후사료비와 조사료로 구분된다. 농후 사료비는 구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계산하지만 조사료는 대부분 자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평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조사료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구입농후 사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되고 농후사료를 자급으로 조달했다면 물론 이를

평가해야 한다. 자급조사료의 평가방법은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과 비용가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비용가에 의한 평가방법을 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용가란 자급사료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 즉, 파종에서부터 건조 또는 엔시레이지 제조시까지 투입되는 모든비용을 그 자급사료의 가치로 보는 견해이다.

축협중앙회가 조사한 비육우 100kg당 생산비는 다음 표와 같다.

〈표-2〉 축산물 생산비 항목과 내용 및 비육우 100kg당 생산비(1989)

	항 목	내 용	생 산 비	구 성 비
생 경 영 산 비	가축비	가축구입비 및 부대비용	28,643	73.6
	농후사료비	구입농후사료비 및 구입 부대비용 자급 농후사료 제조비	3,794	9.7
	조사료비	사료작물 및 목초의 재배관리비, 구입 조사료비 및 부대비용	588	1.5
	수도광열비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65	0.2
	방역치료비	약품대, 수의사왕진비, 가축보험료	78	0.2
	감가상각비		(307)	(0.8)
	건물	축사, 창고	114	0.3
	대농기구	농기계	193	0.5
	수선비	축사, 창고, 농구사, 대농기계 수리비	44	0.1
	소농구비	내용년수 1년미만의 소농구 구입비	5	-
	제재료비	기타 각종재료비 및 구입비용	54	0.1
	차입금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불이자	111	0.3
	고용노임	고용노임 및 급식평가액	140	0.4
	기타 잡비		49	0.1
	비	자가노임	투입 가족노동력 평가액	3,401
토지용역비		토지평가액에 대한 이자	158	0.4
유동자본용역비		유동자본액에 대한 이자	1,201	3.1
고정자본용역비		고정자본재 평가액에 대한 이자	305	0.8
비용합계(A)			38,856	100.00
부산물수입(B)		306	-	
생산비(A-B)		38,637	-	

자료 : 축협중앙회, 축산물 생산비 조사보고, 1990